



# 정계개편·특사방북 'DJ 역할론' 급부상

김대중(DJ) 전 대통령 '역할론'이 정계에 급부상하고 있다. 'DJ 역할론'은 지지부진한 범여권 정계개편에서부터 북한 방문 카드까지 말라되어 있다. 그 스스로도 현실정치에 관한 입장을 활발히 내놓고 있으며, 대중을 상대로 한 특강 정치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중심에 되돌아 온 셈이다. 특히 범여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대통합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김 전 대통령은 최근 여권에 대통합을 이루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있다.

지난 11일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인사차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범여권이 흩어져 있는데 선거가 있어 중요한 시기"라며 "흩어진 힘을 한데 모으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통합에 나서려는 공개 주문이다.

홍남과 민주세력의 최대 주주인 DJ의 이 같은 주문은 대선과 총선을 앞둔 범여권에 최강 가이드 라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여당 탈당 그룹, 그리고 민주당이 정계개편에 각기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총론적으로는 대통합에 동의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영한다.

여기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면 복권되면서 동교동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권노갑 전 고문과 회동했으며, 민생정치모임 전정배 의

## 잇단 정치관련 발언...여권 대통합 메시지 IFJ 강연 "남북서 원한다면 北 가고 싶다"

원은 박지원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

여권 핵심 인사들도 권 전 고문과 박 전 실장과의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3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박상천 전 의원의

권노갑 전 고문을 만나 대통합 문제 등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표 경선 결과가 동교동의 압묵적인 지지 방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동교동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 민주당 등을 아우르며 대통합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설이 파다하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무안·신안 보궐선거 출마는 대통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DJ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민주평화세력 결집에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도 1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기자연맹 강연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좋지만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저의 방북을 바라다면 북한을 한번 가보고 싶다"며 방북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대북 정보보통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이 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가고 돌아올 때는 국군 포로 및 남북자 및 분과 함께 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방북시기는 5, 6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소속 지방문(가운데)·강기정(오른쪽) 의원이 최근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의 '생활가전 개도국 이전' 발언과 관련, 1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삼성광주전자 공장을 방문해 광주시민들의 우려를 전 달한 후 채동석(왼쪽) 부시장과 함께 병장과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문화도시사업 계획대로 진행해야"

### 지방문 우리당 광주시장위원장 "재검토편 연내 착공 어려움"

열린우리당 지방문 광주시장위원장은 13일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문화수도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예정대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가진 취미 기자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원 개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유일한 광주지역 국회 문광위원으로서 그동안 청와대나 문광부와 의견 조율을 해왔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부측의 의

지 또한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시와 광주시회, 송재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동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문화전당 건립을 포함한 종합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종합계획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당장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해가 있더라도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천천히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광주의 장래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 위원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이번 정권 내에 착공에 들

어가야 다음 정권에서는 문화수도 외의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 위원장은 이날 "광주의 미래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달려 있다"며 "문광부가 광주(여론)를 소외시킨 점이 있었으나 다행히 문광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속도감 있게 종합계획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과 관련해 "어린이 지식문화센터(15m)와 아시아아트플렉스(13m)를 지상화해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이 원하는 추가적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랜드마크는 건축물의 높이와 외관보다는 민주주의와 5·18 정신의 송고

한 뜻을 기릴 수 있는 가치중심형 상징물이어야 한다"고 말해 보완책이 그동안 시민들이 원한 웅장한 건축물이 되기는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지 위원장 기자간담회에 동참한 김동철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 2015년 완성 요구에 대해 "2009년 착공, 6년 만인 2015년에 광주까지 완공하는 것도 예산 배정 등 물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이다"며 "때문에 목표까지 구간을 2015년에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는 2017년에 완공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강기정 의원은 동구와 북구 간 구간 경계 조정 논의와 관련, "동구의 공무원들이 동원돼 북구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문제"라며 "구간 조정은 광주시 전체 차원에서 다뤄지고 논의돼야 하는 것이어서 현 구간 조정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수엑스포 실사 한달 앞으로... ④ 평창서 배워라

# 실사단 확신 심어주고 주민들 열정 보여주라

강원도 평창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실사를 받았다.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이미 한 번의 고배를 마셨던 평창의 사례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수의 실사준비에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이번 실사에서 ▲4년 전에 비해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줄 것 ▲실사단을 정성스럽게 맞이할 것 ▲지역민과 정부의 유치의지 및 열정을 보여줄 것 등을 목표로 삼았으며, 성공적으로 실사를 마쳤다고 평가했다.

"평창은 이미 한 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사에서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핵심'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4년 전 실사 당시에 비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실사단에 보여주고 확신을 심어주는데 중점을 뒀고, 결국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 4년전 실패 경험 활용

지난달 실시된 평창동계올림픽 실사를 총괄한 한만수(50)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기획부장은 이번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심사위원들에게 업그레이드된 평창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다 실패했던 지난 2003년 실사 당시에 비해 2014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지금은 무엇이 달라지고,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심사위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노력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사를 시작했거나 계획단계에 불과했던 도로와 건물 등 각종 SOC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앞으로 지어질 경기장과 도로 등에 대해 평범한 도면보다는 3D그래픽을 이용해 실감나는 영상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선명한 이미지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 부장은 이와 함께 실사단이 입국할 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모든 행사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정성을 보여줬던 것이 평창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 객실 세면도구까지 신경

유치위원회는 실사단들이 이질감 대신 친밀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음식권 설정으로 실사를 마쳤다고 평가했다. 객실의 세면도구 같은 일상용품도 브랜드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또 실사단 출신국의 전통문화를 아이টে트로 한 액세서리도 준비했다.

한 부장은 특히 지역 주민과 정부가 행사유치에 얼마만큼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평창의 경우 실사단이 움직일 때마다 지역민들이 연도에 나와 열렬히 환영했으며, 특히 귀국일에는 당초 참여 인원의 절반이 넘는 1만여 명의 도민들이 환송식에 참여, 실사단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 1만여명 환송 감동 자아내

한 부장은 "평창도 여수처럼 한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이번 실사에서는 실패의 쓰러린 경험을 삼분 활용했다"며 "여수 역시 4년 전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확신시켜주고 또 지역민과 정부의 유치의지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군청 스포츠사업단 동계올림픽 유치팀 이현진(40)씨는 "평창군 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18개 시·군민이 모두 참여해 한 몸이 됐다"며 "지역민들 사이에는 '동계 올림픽이 유치돼야 지역이 살고 내가 산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유치 의지와 열정이 실사단계에 큰 감명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끝>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oit Travel (조이트리블) featuring travel packages, sightseeing tours, and group discoun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